

# KIA, 새 외국인 선수 외야수 브리토·투수 윌리엄스 영입

### 브리토, 도미니카 출신·ML 4시즌 뒀 중장거리형 타자 윌리엄스, 우완 정통파·최고 시속 155km의 젊은 투수

#### 투수 명텐도 교체 가능성

KIA 타이거즈가 2022시즌을 함께할 외국인 선수 2명을 새로 영입했다.

KIA가 27일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Socrates Brito·29)와 미국 출신의 오른손 투수 로니 윌리엄스(Ronnie Williams. 우투우타·25)와의 계약을 발표했다.

총액 90만 달러(계약금 10만, 연봉 50만, 옵션 30만)에 계약을 끝낸 브리토는 신장 188cm 체중 93kg의 중장거리형 타자로 주력이 돋보인다.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와 넓은 수비력이 강점이고, 강한 어깨도 보유하고 있다.

브리토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11시즌을 보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99경기에 나와 37안타(5홈런) 18타점 23득점 3도루를 남겼고, 마이너리그에서는 1005경기에 나서 1130안타(80홈런) 520타점 598득점 180도루 타율 0.287을 기록했다.

2015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거친 브리토는 올 시즌에는 뉴욕 양키스 산하 트리플A팀인 스크랜튼 워크스 배리 레일 라이더스에서 10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1, 23도루를 기록했다.

KIA는 윌리엄스와는 총액 75만 달러(계약금 10만, 연봉 30만, 옵션 35만)에 계약을 맺었다.

마이애미 출신인 윌리엄스는 우완 정통파로 184cm, 체중 80kg의 체격을 갖췄으며, 최고 시속 155km의 빠른 공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젊은 투수다. 또 좋은 구위로 공격적인 투구를 하며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올 시즌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더블A팀인 리치몬드 플라잉스 퀴벌스와 트리플A팀인 새크라멘토리 버펄로스 소속 29경기에 출전해 6승 4패 평균자책점 2.77을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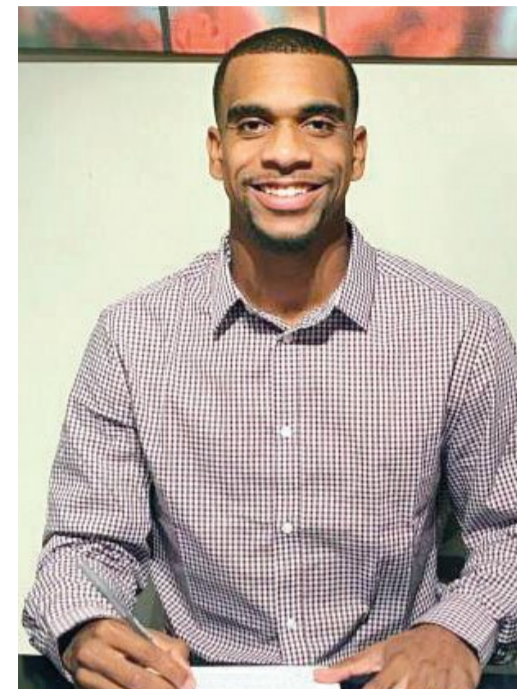
마이너리그에서 7시즌을 보내며 152경기에 나와 24승 29패 평균자책점 4.24를 기록했다.

KIA는 외국인 선수남은 한 자리를 놓고 영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KIA는 앞서 프레스턴 터커를 보류선수 명단에



KIA 새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오른쪽)와 아내.



KIA 새 외국인 투수 로니 윌리엄스.

서 제외하면서 야수 교체를 예고했었다.

다니엘 멩덴과 보 다카하시는 보류선수에 넣었지만, 다카하시가 일본 세이부 라이온즈로 이적하면서 최소 두 자리의 변화가 예정됐던 상황. KIA는

남은 한 자리도 새로운 투수로 채우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만큼 2022시즌 외국인 선수 전원이 새 얼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편 KIA와 계약을 끝낸 새 외국인 선수 브리

토와 윌리엄스는 내년 2월 1일 예정된 스프링캠프 합류를 위해 1월 하순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절정의 골감각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대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있다. 그는 이날 후반 29분 자신의 리그 8호 골을 넣으며 팀의 3-0 승리에 빼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 손흥민 4경기 연속골 ... 토트넘 3-0 승리

### 2021-2022 EPL 19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 대파

손흥민(29)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홋스퍼의 완승을 끌어냈다.

토트넘은 27일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1-2022 EPL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전반전 해리 케인의 선제 결승 골과 루카스 모라의 추가 골에 이어 손흥민이 후반 29분 자신의 정규리그 8호 골로 토트넘 승리에 빼기를 박았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득점 기록(1골 1도움)까지 더하면 올

시즌 손흥민이 기록 중인 공식전 공격포인트는 9골 3도움이다.

앞서 3일 브렌트퍼드, 5일 노리치 시티, 20일 리버풀을 상대로 연달아 득점한 손흥민은 정규리그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전반 3분 시원하게 때린 중거리 슛을 시작으로 토트넘은 끊임없이 크리스털 팰리스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모라가 오른쪽에서 넘겨준 땅볼 패스를 케인이 오른쪽 날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케인은 이 득점으로 개인 통산 박싱데이(12월 26일) 9호 골을 신고, 로비 파울러(은퇴)와 박싱데이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썼다.

2분 뒤에는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모라가 문전에서 러닝 헤더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전반 37분에는 크리스털 팰리스 주축 공격수 윌 프리드 자하가 토트넘 수비수 다빈슨 산체스를 밀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고, 수적 우위까지 점한 토트넘은 더 수월하게 남은 시간을 보냈다.

손흥민이 후반 29분 오른쪽의 모라가 상대 골문에 바짝 붙어 넘긴 땅볼 크로스를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마무리해 3-0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전매특허'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펼쳤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연말-연초 강행군에 대비해 후반 31분 손흥민과 브리안 힐을 교체했다. /연합뉴스

### 우즈 11년 보좌 캐디 라카바 "명품 룡아이언샷은 여전하다"

타이거 우즈(미국)를 11년 동안 보좌한 캐디 조 라카바(미국)가 우즈의 부활을 기대했다.

우즈가 1년 만에 출전한 대회 PNC 챔피언십을 함께 치른 라카바는 우즈의 스윙에 대해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고 27일(한국시간) ESPN이 전했다. 우즈는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두 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특히 오른쪽 다리는 절단할 뻔했지만 힘겨운 재활 끝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열린 가족 대항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와 함께 출전했다.

라카바는 PNC 챔피언십 때 우즈의 백을 뒀고, 라카바의 아들은 찰리의 캐디를 맡았다.

라카바는 "명품 룡아이언 샷은 여전했다"면서 "특히 쇼트게임은 시즌 중이나 다름없었다"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 전남, 발로텔리와 재계약



'특급 외국인 선수' 발로텔리(사진)가 2022시즌에도 전남드래곤즈의 우승을 위해 땀을 흘릴 예정이다.

전남이 27일 발로텔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올 시즌 전남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복귀한 발로텔리는 31경

기에 나와 11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팀 내 최다득점을 기록한 그는 5차례 매치 MVP에 선정됐고, 라운드 베스트 11 명단에도 6차례 이름을 올렸다.

폭발적인 드리블을 앞세워 인상적인 골 장면들을 연출한 그는 FA컵에서도 6경기 1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원정경기로 진행된 울산과의 준결승전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결승행을 이끄는 값진 도움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아이파크 소속이었던 2018시즌 부상으로 실력발휘를 하지 못했던 발로텔리는 올 시즌 새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인 K리그 복귀 시즌을 보냈다.

뛰어난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가진 발로텔리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 부담과 전방 압박 능력이 좋아 전경준 감독의 추구에 최적화된 공격수로 평가받는다.

발로텔리는 "기회를 준 전남에 감사하며 내년 시즌은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FA컵 결승 2차전 일정을 마치고 늦은 귀국길에 오른 그는 내년 1월 중순 한국에 돌아와 광양에서 진행되는 동계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박항서 베트남 스키킵 탈락 준결승 2차전 태국과 0-0

'박항서호' 베트남에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라이벌 태국에 막혀 2020 아세안축구연맹(AFF) 챔피언십(스즈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베트남은 26일 싱가포르 칼랑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20 AFF 스키킵 준결승 2차전에서 태국과 0-0으로 비겼다.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3골 차 승리가 필요했던 베트남이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난 23일 1차전에서 0-2로 패했던 베트남은 이로써 1, 2차전 합계에서도 0-2로 밀려 결승행 티켓을 태국에 내줬다.

2018년 우승팀인 '다맹당 챔피언' 베트남의 대회 2연패와 통산 3번째 우승도 불발됐다.

이 대회 최다 우승(5회)팀인 태국은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인도네시아와 정장 자리를 놓고 29일, 내달 1일 두 차례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